정근식, 체험형 공립 대안학교 '세상중학교' 신설 추진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청, 비전 선포 기자회견
모두 위한 기본교육, 행복 협력교육

유아교육비 무상화 단계적 추진
학습진단성장센터 25개 자치구로
고위험 학생 지원 '마음회복학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교육 2기 비전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체험 중심의 공립 대안학교 성격을 지닌 가칭 '세상중학교'를 신설한다. 만 3~5세 유아교육비 무상화와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을 위한 '마음회복학교' 설립도 추진하고, 기초학력 지원 기관인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는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로 확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비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육 2기 비전으로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을 제시했다. 정 교육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를 유아부터 성인까지 생애 전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본교육'을 대한민국 공교육의 새로운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우선 만 3~5세 유아교육비 무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지속하는 동시에 유아 단계까지 무상교육 범위를 넓혀 국가의 교육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초학력 지원 기관인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도 '1자치구 1센터' 체제로 확대한다. 25개 자치구에 센터를 설치해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학습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을 모든 학생에게 보장해야 할 기본권으로 내세웠다.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마음회복학교도 신설한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과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을 강화한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 범위도 확대해 교권 보호에 나선다.

체험 중심의 공립 대안학교 성격을 갖춘 가칭 세상중학교를 설립하고 특성화고 교육도 활성화한다. 다문화·이주배경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복지 분야에서는 학생 대중교통비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을 추진한다. 유아교육비 무상화와 고교 무상교육, 학생 생활비 지원을 연계해 교육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헌법교육을 체계화하고 역사·세계시민 교육도 확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안팎에서 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정책 설계와 실행 과정을 시민과 공유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학부모와의 소통을 넓힐 계획이다.

미래형 전인교육 분야에서는 AI 윤리와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강화한다. 독서·토론·인문학 교육과 협력종합예술활동을 확대하고, '1학생 1예술·스포츠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정책을 ▲창의와 공감의 미래형 전인교육 ▲모두의 배움을 보장하는 책임교육 ▲지속가능한 민주시민교육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공동체 등 5대 방향으로 구분했다.

교육지표로는 '시작은 촘촘하게, 기본은 탄탄하게, 성장은 다양하게'를 내걸었다. 기본교육은 ▲만 3~5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습안전망 구축 ▲헌법·역사·세계시민교육을 통한 민주주의 교육 ▲학부모·시니어 교육을 포함한 학교 기반 평생교육 확대 등 네 가지 원칙으로 구성된다.

정 교육감은 "서울은 가장 많은 교육자원을 가진 도시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교육격차를 지닌 도시"라며 "서울교육은 오늘부터 기본교육이라는 담론을 가장 먼저 시작하고, 이를 대한민국 공교육의 새로운 기준으로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단 한 명도 배움과 성장, 안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그 기본 위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서울교육의 미래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 구로동 466 일대, 대규모 주거단지로

서울시, 재개발 신통기획 확정
최고 40층, 1500가구 규모로
교통체계 정비, 사회복지시설 배치

서울 구로구 구로차량기지 동측 구로동 466 일대가 최고 40층, 약 15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구로동 466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지는 1970년대 구로공단 배후주거지로 조성된 저층주택 밀집지역이다. 고려대 구로병원과 구로구청 등이 가깝지만 서측 구로차량기지로 인해 동서 생활권이 단절돼 있고, 노후 주택과 급경사 도로가 많아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최대 2단계 상향한다. 사업성 보정계수도 최대치인 2.0을 적용해 약 1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철도변에는 최고 40층, 해발 135m 안팎의 건물을 배치한다. 동측 저층주거지와 가까워질수록 건물 높이를 낮춰 단계적인 스카이라인을 조성한다. 가마산로에서 이어지는 약 30m 폭의 통경축도 확보한다.

교통체계도 정비한다. 철도변 벚꽃로 상·하행 도로의 높이 차이를 해소하고, 북측 회전교차로는 신호교차로로 바꾼다. 남측 구로동 400 일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와 연계해 도로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동측 저층주거지와 단절된 도로도 연결한다.

차량 진출입구는 교통량이 많은 구로동로를 피해 주변 도로 3곳에 분산 배치한다.

북측 구로역과 구로초등학교를 오가는 진입부에는 공원을 조성한다. 남측에는 공원과 노인 돌봄 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배치한다.

급경사 지형에는 데크형 대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 높이 차이는 엘리베이터와 경사로로 연결한다. 동측 저층주거지 방향에는 경사형 보행로를 설치한다. 데크 하부에는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6월 대상지 선정 이후 전문가 자문과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며 "다음 달부터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추진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 군사규제 해소

대화·법곳·장항동 일대 77만㎡ 해제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 사업구역을 포함한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된다.

고양시는 국방부가 21일 고양시 법곳동·대화동·장항동 일대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77만701.5㎡ 해제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전체 해제 면적 가운데 일산테크노밸리 사업구역은 44만6716.5㎡다.

시는 그동안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제약 요인으로 꼽혀온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토지 분양과 기업 유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산테크노밸리는 일산서구 대화동·법곳동 일원 87만1761㎡ 규모로 조성 중인 고양시 첨단산업 거점이다. 사업구역의 절반 이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포함돼 고도 16m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군 협의가 필요했다.

시는 이 같은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 경기도와 지상작전사령부 정책협의회에서 군사시설 이전 합의를 이끌어냈다. 2020년 6월에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이전사업을 추진했다.

이전사업은 시가 군사시설을 신축해 기부채납하고 기존 시설을 양여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해당 사업은 2023년 10월 착공해 2025년 4월 준공됐다.

고양시는 군사시설 이전 이후에도 보호구역이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완전 해제를 목표로 관계기관 협의를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로 일산테크노밸리 사업구역을 포함한 555개 필지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다. 고양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진행 중인 일산테크노밸리 토지 분양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경기도, 휴가철 맞아 '서해누리호' 증편

'풍도·육도' 당일 섬 여행 가능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안산시 대부도와 풍도·육도를 오가는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여객선 '서해누리호' 운항 횟수를 확대한다.

도는 오는 24일부터 10월 11일까지 매주 금·토·일요일과 공휴일에 서해누리호를 하루 2회 운항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해누리호는 하루 한 차례만 운항해 섬 방문객들이 최소 1박 이상 체류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증편으로 관광객들은 오전 배를 이용해 섬에 들어간 뒤 오후 배로 돌아오는 당일 여행이 가능해진다.

운항 횟수 확대는 관광객뿐 아니라 섬 주민들의 생활 편의 개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병원 진료나 생필품 구매 등을 위해 육지를 방문할 경우 당일 귀가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오전·오후 시간대를 선택해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또 여름 휴가철과 추석 명절 기간 가족·친지 방문 등 주민 이동도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서해누리호 증회 운항을 위해 운영선사인 대부해운에 운영경비 1억 원을 지원했으며, 수도권 시민들의 접근성이 낮았던 도서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육도 /경기도

임동수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증회 운항을 통해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수도권 시민들도 부담 없이 가까운 섬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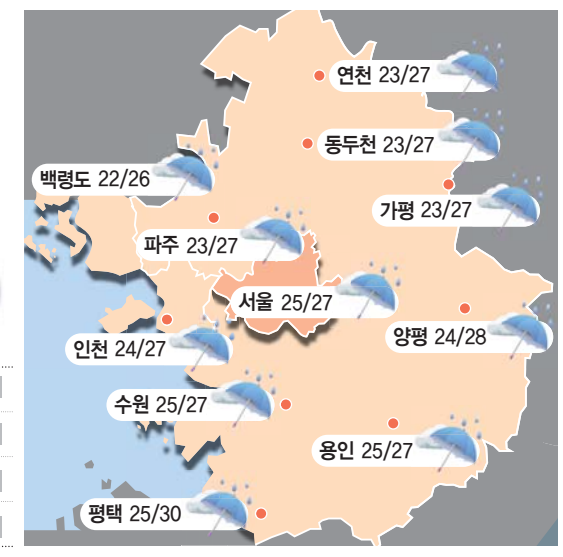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5:28 | 해짐 / 19:48

7월 23일(木)
음력 : 6월 10일

수도권 날씨
25~27℃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트럼프, 사우디 민간 원자력 협정 승인…우라늄 농축 허용" /사진 뉴시스

▲日 올해 상반기 무역적자 9조원…반도체 수출 등에 적자폭 절반↓

▲"월드컵에 빠진 중국"…조회수 700억 회·축구복권 16조원 팔려

▲프랑스, 15세 미만 SNS 이용 금지…EU 최초 법안 통과

▲칠레 폭우로 최소 10명 숨져…4명 실종·10만명 고립

▲한국 여권 세계 공동 2위…미국은 20년 새 선두에서 10위로